

팀 이름

삼각김밥

팀원

2018102095 김명철

2018102121 유창현

2018102143 주창돈

인터뷰 대상자 Jozef Simo (BeMyApps Designer)

Q1.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감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는?

A1. 시력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웃 등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야했다.

시각장애 친구가 Skype 등의 화상통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앱으로 쉽게 자원 봉사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터뷰 대상자 BeMyApps 자원 봉사자

Q1.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A1. 시각장애인에게 전화가 오고 그것을 연결하려 시도할 때 연결 시간이 너무 길다. 응답하기를 누른 후 6~7초 정도 소요된다고함.

Q2.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얻고자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A2. 냉동식품 조리법, 양말 짝, 고지서에 나타난 정보, 신용카드 번호, 컴퓨터 문제 해결, TV 조작, 돈

Q3.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복지에서 향상되어야할 것은?

A3. 국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어플이 활성화가 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용화됐으면 좋겠음.

Q4. 시각장애인들의 학습 지원 또는 교육 어플 사용에서의 개선점

A4. 시각장애인들이 가지는 문제의 카테고리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상자 참사랑의 집(장애인, 사회 복지사)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한 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1)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복지 정책들은 북유럽에서 많이 배워와 큰 발전을 이뤄왔지만, 이를 진행할 사회복지사 인력이 부족하여,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외부강사(시각장애인 교육봉사 프로그램 이수x)들을 쓰고 있다. 하지만 외부인을 많이 낯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2) 방과후 활동 진행

대부분, 인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봉사활동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전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을 많이 낯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 또한 인력 부족의 실정과 이어진다.

(3)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 허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생활’을 존중받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호의 속에서 솔직히 지치고 있다.

2. '시각장애인이 학습을 하는 경험'을 리디자인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경험 속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력부족 실정, 방과후 활동, 사회복지사 복지 개선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은 수학을 공부할 때 시각장애인 전용 학습 도구를 사용한다

일반인과의 문제 풀이 해결방식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4.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을 키워야할 필요성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Say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취향들은 큰 발전을 이뤄왔다.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들은 생각하
있으면 줄겠다.

조금씩이라도
해결 방법을
모르면
도움도 어렵다.

보통 교육 장애는 왜 하나들
있지?
(하지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교육
이유x)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

Emp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면역
부족하다.

실제로 시각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시각 장애인들이
주요 필요하는 정보는?
모바일, 과거 일기, 컴퓨터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것
것들을 가진 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상상한다.

시각 장애인 학습에
효과가 큰다면
없다.

Think

Be My Eyes

95,100 < 1,621,450
시각장애인
지원금과

생각보다 많은 앱 사용자를 기대한다.

시각장애인들이
공유할 건 어디에
쓰는지 본론 것이다.

국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종 이식 센서보인
각종 불사라가
더 정확하게
도움줄 것이다

방과 후에도
나와 같이 싶은 것
공과 내 바그
도움줄 바라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같은 시각장애인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과
같이 환경을 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

'Be My Eyes' 앱에
'Voice memo' 기능
추가될 것

Do

시각 장애인
의복을
보통이 쓴다.

시각 장애인들은
상업적 매체 활용 정도
이상이 많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폰
Voice Over 기능으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아이폰으로
55% 선호한다.

시각 장애인도
활용 가능하다.

자율분리기가
오류로 잘못 인식, 앱
기본에 잘못 알려
오류로 처리되었다.

사회복지관은
현 세제 지원

물건을 손으로
가늠하여 가져가서
쓴다.

시각 장애인
수익을 공할 때,
사회복지관을 활용도를
4월이다.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데도,
이제야 시작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상 동화를 하며
모습을 받았다.

누구나 나의 눈
자랑할 수 있다.

Feel

자신 봉사적 경험
유용 느낄

과외동아리 특근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할까 걱정
느낀 것 같다

이제 어떤지 걱정해본
주변인과 주선해
주선해 주선해
주선해 주선해

시작 중계할
위해는
상황이
상황이

술이
그런 편으로

시작중계하는
바라보는
되겠다

같은 시작중계
이런
수 있다

수작
원칙을
위해
계속하고

시작중계는
만약
쓰고
과정에서

시작중계
위해
시작중계
위해